

‘부상’ 김민재 대신할 김주성 합류… 홍명보호 수비라인 찾는다

20일 고양에서 오만과 월드컵 예선
김주성, 1년5개월 만에 대표팀 승선
조유민·정승현·권경원 등과 선발 경쟁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이번 3월 A매치에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초기 확정을 노리는 가운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하는 게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홍명보호는 오는 20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오만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7차전 홈 경기를 갖는다.

25일에는 수원월드컵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 요르단과 8차전을 치른다.

18일 현재 4승2무의 무패로 B조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은 이번 3월 A매치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 조기에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하게 된다.

홈에서 열리는 경기인 데다, FIFA 랭킹 23위인 한국보다 상대적 약체인 오만(80위), 요르단(64위)과 붙어 어렵지 않게 목표를 달성할 거란 평가가 따른다.

다만 세계적인 수비수로 성장한 김민재(29·바이에른 뮌헨)가 없다는 변수를 극복해야 한다.

이번 시즌 내내 부상 문제가 불거졌던 김민재는 지난 15일 아카데미 훈련 문제로 대표팀에서 낙마했다.

홍 감독은 17일 김민재의 빈자리를 채울 선수로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의 젊은 수비수 김주성(25)을 대채 발탁했다.

김주성은 지난 2023년 10월 A매치 이후 오랜만에 태극마크를 달고 그라운드를 누빌 기회를 잡았다.

대표팀 소집은 지난해 10월 A매치가 마지막이다.

경기를 뛰진 않고 팀에 소집돼 훈련만 했다.

홍 감독은 지난 17일 소집 당시 김주성 발탁 배경에 대해 “지난해 한 번 팀에 합류했었다. 수비는 조직력이 중요하기에, 다른 선수들보다 한 번 들어왔었고 우리 경기 모델에 대해 경험이 있는 점을 생각했다”며 “(소집 직전 소속팀에서의) 지난 경기에서도 수비적인 측면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는 대표팀에 승선한 이후부터 꾸준히 불박이 주전으로 활약했다.

김민재의 파트너로 김영권(35·울산 HD)가 낙점돼 오랜시간 대표팀의 중앙 수비 라인을 책임졌다.

김영권은 왼발잡이로서 왼쪽 센터백으로, 김민재는 오른발잡이로서 오른쪽 센터백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김영권이 30대 중반에 들면서 예전만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자, 좌우를 가리지 않고 뛸 수 있는 김민재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에 새로운 파트너들이 들어섰다.

홍 감독이 부임한 지난 9월 정승현(31·알 와슬)이 한 차례 시험대에 오른 이후, 10월과 11월 A매치 때는 조유민(29·샤르자)이 꾸준히 김민재와 짝을 이뤘다.

지난해 10월10일 요르단전(2-0 승)을 마지막으로 매 경기 실점이 나오는 상황이 있었으나, 2승1무로 무패를 이어가는 데 큰 공을 세운 조합이었다.

이에 조유민은 이번 3월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고, 정승현 역시 부름을 받았다.

이들 외에 다른 중앙 수비로는 권경원(33·코르파칸)이 있다. 박승욱(28·김천상무)도 중앙 수비를 뛸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지만, 본업인 측면 수비에서 경쟁할 거로 예상된다.다만 홍 감독이 훈련 컨디션에 따라 선수를 선발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집 훈련에서 정승현과 김주성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정승현(A매치 26경기)은 조유민(A매치 11경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과 오현규, 김주성 등 선수들이 17일 경기 고양종합보조운동장에서 3월 A매치 대비해 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은 오는 20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오만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 7차전을 치른 뒤,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요르단과 8차전을 갖는다. /뉴스1

보다 대표팀 경력이 더 많아, 수비 라인에 경험을 더할 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A매치 2경기 출전이 전부인 김주성은 권경원(A매치 32경기)보다 경험은 적지만, 같은 왼발인 데다

홍 감독이 이번 대표팀에서 ‘젊은 패기’를 강조해 짝꿍 선발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에 김주성은 3명의 형들과 선의의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홍 감독이 왼쪽 센터백에 왼발, 오른쪽 센터백에 오른발을 고집한다면, 왼발 권경원이 조유민의 짝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뉴스1

강진 피싱마스터스 대회, 전국 강태공 마량서 승부수

2024년 대규모 낚시대회로 전국을 뜨겁게 했던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가 오는 4월 19일 강진군수배 감성돔 낚시대회로 막을 올린다. 지난해 시즌1으로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던 강진군이 올해도 낚시 명소로서의 입지를 다질 전망이다.

강진군수배 감성돔 낚시대회 참가비는 35만원이며 강진군민에게는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접수 당일 5만원을 환급해준다.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참가비 입금이 완료된 후 접수가 확정된다.

대회 순위는 무게 계측 방식으로 진행되며, 동일한 무게의 경우 마리수, 길이, 입금 순으로 순위가 정해진다. 참가자 전원 대회 모자가 제공된다. 우승자에게는 시상금 1,000만원, 2등 500만원, 3등 300만원, 4등 200만원, 5등 100만원, 6등부터 10등까지 50만원이다.

강진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대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마량 일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하면 소정의 낚시용품이 지급한다.

행운권 추첨을 통해 강진 상권 이용권 등의 경품도 제공한다. 시상금 일부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행사장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수산물 판매 부스를 운영한다.

4월19일에는 대회와 함께 마량놀토 수산시장에서 ‘토요음약회’가 열린다.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와 트로트 공연이 어우러져 참가자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

올해 첫 대회 강진군수배 감성돔 선상낚시대회 20일부터 모집
입금 완료 후 접수 확정… 우승 상금 1,000만원 10등까지 시상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마량놀토수산시장 등 연계 경제 활성화도



할 예정이다. 대회를 마친 후 참가자와 가족들은 낚시의 여운을 느끼며 강진 마량미항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4월20일에는 대회 시상식과 함께 대규모 경품 추첨이 열린다. 상위 입상자들에게는 푸짐한 상금이 수여되며,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 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1등 경품으로는 50만 원 상당의 요트 승선권이 준비돼 있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밖에 다양한 낚시용품과 지역 상권 이용권이 경품으로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2025 강진 피싱 마스터스는 이번 강진군수배 감성돔 선상낚시대회를 시작으로 5월에는 불바리 선상낚시대회, 9월 문어 선상낚시대회와 주꾸미 선상낚시대회, 10월 감성돔 선상낚시대회, 11월 빅게임 대방어 선상낚시대회로 이어

진다.

올해 달라진 점은 MBC SPORT+에서 대회를 중계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며, 6월 중 방영될 예정이다. 많은 낚시인들이 대회를 주목하는 가운데 참가자들에게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선보이고 1등의 영광을 차지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강진 피싱 마스터스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은 2025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과 연계해 선수들의 참가비 부담을 줄이고, 관광객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은 “올해에도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를 통해 전국 낚시인들과 함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강진 반값여행, 마량놀토수산시장 등 강진의 다양한 관광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화순군, 화순군체육회장배 및 화순적벽배 배드민턴 축제 개최

전남 22개 시군 동호인 참가, 봄을 여는 열정의 랠리!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하니움실내체육관과 이용대체육관에서 ‘2025년 화순군체육회장배 및 화순적벽배 배드민턴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순군체육회가 주최하고 화순군배드

민턴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2,000여 명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참가할 예정으로 대회 첫날인 3월 22일 오후 3시 이용대체육관에서 개회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건강

증진 및 친목 도모를 목표로 하며, 화순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배드민턴 저변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형재 관광체육실장은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많은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고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한마당이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가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안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종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시영 운암 3단지 재건축청바사업조합 시영 GS건설 (주)한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062) 607-8338